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와의 인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는 라파엘호를 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던 도중 풍랑을 만나 바다에 표류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에 도착하게 된 김대건 신부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이다. 그 순간은 우리나라의 신부가 우리나라 땅에서 최초로 성사를 올린 기념비적인 현상이었다.



한경해안로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738-3 ~ 한경면 신창리 616(약 6km)

용수길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501-2 ~ 한경면 용수리 1523(약 1.8km)

용당길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053-1 ~ 한경면 용수리 3891(약 1.8km)

주전길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242 ~ 한경면 용수리 1522-1(약 1.2km)

한경해안로(성김대건해안로) |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

한경해안로는 제주도의 서쪽 해안인 한경면의 해안을 지나는 길이다. **한경해안로**가 지나는 용수리 바닷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표착한 곳이기도 하다. 김대건 신부는 당시 천주교의 박해가 심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16살에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 5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다. 지금으로 치면 조기 유학을 떠난 것이다. 그곳에서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비롯해 음악, 그림 등을 공부했다. 그리고 중국 상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고 신부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후 무동력 목선인 라파엘호를 타고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 출발했다. 하지만 심한 풍랑을 만나 바다 위에서 28일간의 표류 끝에 제주 용수리 해안에 표착했다. 그리고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한 감사의 미사를 올렸다고 전한다. 김대건 신부가 제주에 머물렀던 시간은 하루 이틀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은 천주교 성지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현장이 되었다. 지금 용수리 해안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첫 번째 미사와 성체성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리기 위해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이 지어져 있다. 그리고 그곳에 김대건 신부가 타고 온 라파엘호를 복원해 놓았다. **한경해안로**는 김대건 신부와의 인연을 기리는 뜻에서 성김대건해안로라는 명예도로로 지정되었다.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

한경해안로 | 절부암

한경해안로를 따라 용수포구에 도착하면 절부암이라는 바위를 만날 수 있다. 절부암에는 헤어진 남편을 그리워한 아내의 이야기가 망부석 전설처럼 전해온다. 옛날 용수리에 강씨 총각과 고씨 처녀가 결혼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차귀도에 대나무를 구하러 배를 타고 갔다가 풍랑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기 위해 바닷가를 떠돌았지만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다. 석 달이 지나도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아내는



절부암

남편을 따라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죽음을 택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남편의 시체가 그제서야 절벽 아래 떠올랐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부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후 제주관관 신재우는 고씨가 뛰어내린 바위에 절부암이라는 글자를 새기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매년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 제사는 마을제사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전한다.

용수길 / 용당길 / 주전길 | 용수리와 용당리

용수리를 지나는 **용수길**과 용당리를 가로지르는 **용당길**은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들이다. 두 마을의 이름은 모두 용과 관련된 지명들이다. 이 지역에는 용못이라 불리는 연못이 있는데 오래 전에 용이 이 연못에서 머물다가 날아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용수와 용당으로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마을 이름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탐라지>의 기록에 보면 과거 이 지역은 우포 또는 와포라고 기록되어 있고, 범질포로 기록된 문헌도 있다.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말과 조선초기에 왜적이 침입해서 포구를 노략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600년 전에도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이다. 마을의 이름의 유래가 되었던 용못은 옛날에는 200m가 넘었지만 지금은 도로가 뚫리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용수길, **용당길**과 한 곳에서 만나는 **주전길**은 용당리에 있는 마을인 주전동의 명칭을 반영한 이름이다. 주전동은 주변이 모두 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밭 전(田)자를 써서 주전동이라고 했다는 설과 마을에 있던 돌무더기를 ‘쥐고본디머들’이라 불렀는데 이것을 부르던 말이 변해 주근동으로, 그리고 주전동으로 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